



: 2026 2 9 5:11



눈괴불주머니 / *Corydalis ochotensis* Turcz.

| 구분 | 설명 |
|------|------|
| 생물분류 | 식물 |
| 속국명 | 현호색속 |
| 과국명 | 현호색과 |

| | |
|------|--|
| 과명 | Fumariaceae |
| 일반특징 | <p>요약설명 : 현호색과 두해살이풀로 전국의 산지에서 자란다. 이 외에도 중국, 일본, 시베리아, 러시아의 극동부에 분포한다.</p> <p>분포지역 : ►한국, 중국, 일본,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부에 분포한다. ►전국 각처 산지에서 자란다.</p> <p>형태 : 두해살이풀.</p> <p>크기 : 길이 60cm정도이다.</p> <p>꽃색 : 노란색</p> <p>개화기 : 8월, 7월, 9월</p> <p>잎은 어긋나며 잎자루가 길고 삼각형이며 2-3회 삼출겹잎이다. 맨 나중 작은 잎은 3개로 깊게 갈라지고 끝이 둥글며 잎자루에 날개가 있다. 갈라진 조각은 긴 타원모양 또는 거꿀달걀모양이다.</p> <p>7~9월쯤이면 입술모양꽃이 노란색으로 핀다. 약 10개 정도의 꽃은 줄기나 가지 끝에 한쪽 옆으로 치우쳐 총상꽃차례로 달린다. 꽃을 감싸는 작은 잎은 달걀 모양 또는 넓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받침조각은 얇은 막처럼 되어 있다. 꽃잎은 4개로 입술모양에 가늘고 길게 튀어 나온 꽃뿔이 있다. 수술은 6개이고 암술머리는 4개로 갈라졌다.</p> <p>열매는 삭과고 긴 거꿀달걀모양이며, 7월부터 익는다. 씨앗은 검은색이고 두 줄로 배열되며 광택이 나고 밋밋하다.</p> <p>줄기는 전체에 분처럼 하얀색을 띠고 모가져 있으며 가지가 많이 갈라져서 엉킨다. 땅 속에 굵고 튼튼한 뿌리가 있다.</p> <p>산골짜기의 개울가나 숲 가장자리의 습지에서 잘 자란다. 한국에서 자라는 괴불주머니 속(생물분류의 한 단위) 중에서 가을에 유일하게 꽃이 핀다.</p> |